

‘세계 양궁인 축제 성공 이끈다’...막바지 준비 ‘총력’

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 **D-30**

11일 자원봉사자 발대식...경기운영·안전 등
선수단 76개국 739명 엔트리 등록...15일 확정
저개발 10개국 선수 15명 초청·양궁장비 후원

광주시가 오는 9월5
일 개막하는 ‘광주 202
5현대세계 (장애인) 양
궁선수권대회’를 앞
두고 경기장, 수송·숙
박 등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‘평화의 울림
(The Echo of Peace)’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90여
개국 최정상급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 1천300
여명이 참가한다.

광주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전 세계
에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
이다. 특히 결승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
인 5·18민주광장 (옛 전남도청)에서 펼쳐져 전
세계에 민주도시 광주를 알리는 특별한 무대가
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◇경기장 환경 대대적 정비
광주시는 세계양궁연맹 (WA)의 규정에 부합
하도록 경기장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. 예
·본선 경기가 열리는 광주국제양궁장은 사업비 38
억원을 투입해 양궁장 폭을 기존 210m에서 좌우
각 10m씩 총 20m를 확장하고 장비 보관실 등 다목
적공간도 새롭게 조성했다. 또 잔디를 새로 식재
하고 외부 도색, 노후 관람석 의자 교체 등 시설도
개선했다. 결승전이 열리는 5·18민주광장 특성 경기



개막 기다리는 국제양궁장 양궁대회 개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5일 예·본선 경기가 열리는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이 폭을 기존 210m에서 좌우 10m씩 총 20m를 확장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. /김애리 기자·조영권 인턴 기자

장에는 800여석 규모의 임시 관람석이 설치된다.

◇선수단 숙박·수송 등 ‘만전’
조직위는 선수단의 쾌적한 숙박 환경을 위해
광주지역 내 12개 호텔, 총 800여 객실을 확보했
으며 각 호텔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균형 잡
힌 식단을 제공할 예정이다.

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에는 12일간
총 372대 버스가,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11일
간 총 184대의 버스가 각각 투입돼 선수단의 수
송을 담당한다.

◇대회 티켓 사전예매 진행
대회 관람권 티켓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N
OL인터파크 티켓 (문의 1544-1555)에서 오는 8
일까지 사전예매 할 수 있다. 종일권, 오전권, 오
후권 등 세션권 방식으로 다양하게 관람객이 자

신의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
성됐다. 사전예매 기간에는 정가 대비 20% 할인
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.

◇‘나만의 우표’ 제작
조직위는 전남지방우정청과 협업해 대회를
기념하는 ‘나만의 우표’도 제작·판매한다. 대
회 마스코트 ‘에피 (E-Pea)’가 디자인된 이 우
표는 요금 표기가 없는 영월우표 (무연면 우
표)로, 우편 요금 인상과 관계없이 평생 사용
할 수 있다. 우표는 6일부터 대회 누리집 또는
전화 (062-603-7133~4)를 통해 예약할 수 있
으며 9월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.

◇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진행
‘노 플라스틱 (No! Plastic), 예스 (Yes! 966)’이
라는 친환경 슬로건에 맞게 대회 기간 동안 선수

단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
한 활동도 펼쳐진다.

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, 광주환경공단과 협업으
로 시민참여형 친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조직위는 세계양궁연맹 (WA)과 대한양궁협
회 등과 협의해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적거나 양
궁 기반이 부족한 양궁 저개발국가 10개국 15명
의 선수를 초청했다.

초청 선수들에게는 1인당 약 40만원 상당의
체제비가 지원되며 항공료, 숙박, 식비, 참가비
가 포함된다. 또 국내 양궁장비 제조업체 (쥬파이
빅스와 윈엔윈쥬이) 생산한 엘리트 선수용 리커
브 활과 부속 장비가 후원된다.

◇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
오는 11일에는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회 자

원봉사자 발대식을 연다. 지난달 22일 열린 대회
서포터즈 발대식에 이은 공식 일정으로, 대회 현
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300여명의 자원봉
사자들이 참석한다. 참가자들은 경기 운영·지원,
안전관리,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활동한다.

이연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“이번 대회 개최
를 광주의 도시마케팅 계기로 삼아 국내외에서
더 많은 사람이 광주를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
다방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”며 “시민들께서
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장에 나와 응원하는 등 적
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지난 4일 기준 비장애인대회에 76개국 73
9명, 장애인대회에 43개국 427명의 선수단이 엔
트리에 등록했으며 최종 엔트리는 오는 15일 확
정될 예정이다. /변은진 기자

방송법,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...‘정청래 체제’ 1호 법안

필리버스터 24시간 12분 종결...곧바로 표결

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요구권 (거부권) 행사
로 폐기됐던 방송3법 (방송법·방송문화진흥회법·
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) 가운데 방송법 개정
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▶관련기사 13면

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
시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(무제한
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)를 진여
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
했다.

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

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, 반대 2명으
로 가결됐다.

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
24시간이 지나면 재석 의원 5분의 3 이상 (180명
이상)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.

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

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
간 12분 만에 종료시켰고,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
에 반발해 퇴장했다.

방송법은 ‘더 강한 민주당’을 표방한 정청래
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
한 ‘1호 법안’으로 기록됐다.

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·언론·사
법 개혁 등 ‘3대 개혁’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
는 핵심 입법으로, KBS·MBC·EBS 등 공영방송
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. /연합뉴스

Today

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8년째 제자리	6면
제19회 광주사진대전...입상작	14면
홈에서 강한 KIA, ‘무적 호랑이’로 변해야	16면

**AI가 광주매일신문을
똑똑하게 읽어줍니다.**

2025 Namdo International Culinary Expo

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

2025. 10. 1. - 10. 26.

목포문화예술회관 / 평화광장 / 원도심 일원

Namdo Culinary International Expo

자연을 맛보다, 바다를 맛나다

Where Nature Meets Flavor, Where Ocean Grees Taste

주최 전라남도 목포시

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